





서가풍경

고서 속에 깃든 한 사학자의 열정

규장각 관장 정옥자 교수의 서가

그녀를 만나러 가던 날 반가운 단비가 내렸다. 빗방울을 맞으며 나뭇잎들은 잎잎이 춤을 추고, 아카시 나무들도 갈맷빛 싱그러움에 취한 듯 향기를 묻어두고 있었다. 서가의 문을 열자 검은색 장정의 《일성록》(日省錄) 영인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흙사 묵향 속에서 피어난 청초한 난꽃 같은 주인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다. 규장각 관장 정옥자 교수(60, 서울대 국사학과)는 식민사관에 따라 천대받던 '조선 후기'를 문화사와 사상사로 새롭게 해석한 학자이자 규장각의 첫 여성 책임자다.

“규장각은 도서관과 국학 연구, 그리고 박물관과 사회교육 기능을 겸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학기관이죠. 그런 만큼 활동 영역도 날로 넓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규장각 자료의 대중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가에는 영조시대부터 1910년까지 151년간 왕의 일기를 기록한 《일성록》, 각종 의식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의궤》(儀軌),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 한국정신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그림과 서화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시원스레 뚫린 창으로 관악산 자락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흘러든다. 고즈넉한 서가는 어느새 주인의 자태를 닮아 있다.

서가를 나서는데 들어갈 땐 보이지 않던 한시가 눈에 띈다. 소 응의 한시 〈청야음〉(淸夜吟)을 적은 숙종대왕어필 판본이다. 자연의 도를 자득한 그 시구 속에서 평생 고서 속에 파묻혀 지내다 자연스레 묵향을 닮아간 한 사학자의 내면이 일렁였다. — 박옥순 기자

